

|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5년 11월 30일  | 보도일시 | 25년 11월 30일(즉시) |
| 사진   |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| 쪽수   | 2쪽(본문2)         |

## DAXA 교육 플랫폼 D-Learning 개설... 이용자 보호 강화

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(DAXA)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 플랫폼 'D-Learning'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.

지난 9월 금융당국 지원 하에 DAXA가 마련한 「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」에 따라, 12월 1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-Learning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이뤄진다. 사전교육은 ▲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▲가상자산 관련 법규 및 제도 ▲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 및 올바른 활용 등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D-Learning에서 이용자가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모두 이수하면 별도의 확인증 발급 없이 이수 여부가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자동으로 연동된다.

한편 D-Learning을 통한 적격성 확인과는 별도로,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적정성 확인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. 해당 절차를 통해 이용자는 각각의 절차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구조와 특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며, 이용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"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매매와 다른 담보·청산 등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, 이를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"며 "향후 D-Learning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업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 끝.

※ [참고] D-Learning 홈페이지 URL : <https://edu-kdaxa.org>

|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<br>부서 | 정책본부 | 책임자  | 본부장 | 홍 균 | 02-6959-8084 |
|          |      | 담당자  | 부장  | 선민수 | 02-6959-8087 |
|          | 홍보실  | 홍보팀장 | 차장  | 유민상 | 02-6959-8084 |